2017. 04. 04.(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4월 4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I·SEOUL·U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2133-5260
미주구주팀장	박경길	2133-5284
담 당 자	김미영	2133-528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서울·런던 두 혁신 시장, 정책교류 본격화 물꼬

- 박원순 시장, 3일(월) 런던시청서 사디크 칸 시장과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 경제민주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혁신 등 9개 분야 협력, 관련 정책 교류 약속
- '세계도시문화포럼' 성공개최 긴밀협의, '도시건축비엔날레' 초청, WeGO 동참 제안
- 인권변호사·시민사회 출신 공통점, 日 NHK '세계 개성파 시장' 나란히 이름 올리기도

□ 박원순 시장과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시장이 3일(월) 13시 30분〈현지시각〉 런던시청에서 만나 「서울-런던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서」를 체결하고, 경제민주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혁신 등 9개 분야에서 도시 간 협력을 약속했다.

□ 박 시장과 사디크 칸 시장의 만남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처음 이뤄졌다. 두 시장은 지난 29일(수) 파리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계 최초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도입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기투합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도시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 인권변호사,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은 시장이 된 이후에도 '위코노믹스'(서울), '모두를 위한 행정'(런던) 등을 통해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서민 시장들이다. 작년 일본 NHK가 소개한 '세계 개성파 시장 4인'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글로벌 혁신 시장이기도 하다.

□ 「서울-런던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서」를 통해 양 도시가 협력하기로 한 9개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경제민주화 ▲디지털 혁신 ▲문화·예술 ▲관광 ▲전자정부 ▲스마트도시 ▲사회혁신 ▲도시재생이다.

○ 이번 협정은 앞서 지난 '15년 12월 양 도시가 체결한 '우호 및 협력관계 협약서'의 후속 협약으로, 양 도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협력분야를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공정한 임금, 노동자 권리 등 분야에서 양 도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양 도시가 회원으로 있는 C40 국제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해결 솔루션과 관련 지식을 교류하기로 했다.

□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오는 11월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World Cities Culture Forum)」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 세계도시문화포럼은 '12년 런던시장 주도로 공식 발족한 도시간 문화정책 네트워크 회의로, 회원 도시간 문화정책 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11월 초 개최하고 있다. 런던, 뉴욕, 파리 등 32개 도시가

회원으로 있으며, 서울시는 '16년부터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시는 작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올해 개최지로 선정됐다.

□ **박 시장은 칸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17.9.1.~11.5.)에 런던을 게스트시티로 초청하고,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동참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도시계획, 도시공간 분야 등에서 양 도시 관계를 더욱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 **협약식에 이어 14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등 런던시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분야 정책을 서울시 대표단에 소개하는 정책 브리핑 시간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 **한편, 런던시는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이자 세계의 문화수도, 금융 중심지로 불리우는 만큼 예술·경제·패션·엔터테인먼트·금융·관광·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 포브스지 선정 세계 영향력 있는 도시 1위(2014)로 선정 된 바 있다.**

○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최초의 무슬림 런던시장이다. 영국 노동당 소속으로 2016년 5월 영국 지방선거에서 57% 득표율로 잭 골드스미스 보수당 후보를 제치고 선출됐다.

□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같이 세계 도시들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도시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다 활발히 교류하게 될 것으로 기**

대한다”며 “사디크 칸 시장과 다방면에서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질적 교류를 통해 세계도시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서안(한글버젼)

본 우호 및 협력 관계 성명서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이하 "SMG")와 대영제국 런던광역시(이하 "GLA")간 체결되었으며 이 두 도시는 이하 "양 도시"로 칭한다.

제1조

양 도시는 평등과 상호이익 정신을 바탕으로 소속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우호적 교류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제2조

양 도시는, 시민들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보다 건강하고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 해결 솔루션, 혁신적 조치 및 저탄소 관련 지식을 공유한다. 양 도시는 서로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야심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 솔루션을 추구하고 (C40, 이클레이 등) 가능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제3조

양 도시는 공정성과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기회와 번영의 공유를 도모한다. 양 도시는 다양성, 공정한 임금, 노동자 고용 권리 등의 분야에서 서로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로 한다.

제4조

양 도시는 국경을 초월하는 혁신 부문의 발전을 위해 상대 도시에 대한 투자에 관심 있는 관련 분야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디지털 연결성 부문을 비롯한 기술적 혁신이 가장 성공적으로 지원된 사례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제5조

양 도시는 문화, 예술 및 관광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 추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양 도시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World Cities Culture Forum) 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상대 도시가 주최하는 기타 국제포럼 및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제6조

양 도시는 전문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스마트도시, e-정부, 도시 재생, 지속가능개발 및 사회 혁신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양 도시는 실질적 교류와 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필요 시 추가 분야나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본 성명서는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각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4월 3일 런던에서 공식 서명함으로써 공표된다. 본 성명서는 양측이 본 문서에 구상한 협력 부문만을 반영한다. 본 성명서는 서명한 양 도시 대표 측에 그 어떤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 성명서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서명 즉시 효력을 가진다. 아울러 어느 한 도시가 재고를 요청하지 않는 한, 두 도시의 협력은 지속된다.

서 울 특 별 시	런 던 시
시 장 박 원 순	시 장 사 디 크 칸
_____	_____

붙임2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서(영문버젼)**

Statement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London and Seoul

This statement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is hereby made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GLA') of the United Kingdom,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th cities".

Article 1

Both cities shall build friendly exchanges and cooperative relations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Article 2

Both cities will share low carbon knowledge, innovations and solutions for tackling climate change that will help us to create better, healthier and more resilient cities from which all our citizens can benefit. We will champion innovative solutions and use available networks (such as C40 and ICLEI) to develop and learn from best practice and meet ambitious targets.

Article 3

Both cities are passionate about the importance of fairness and social justice and for opportunity and prosperity to be shared. We agree to share best practice examples on areas such as diversity, fair pay, apprenticeships, and employment rights for workers.

Article 4

Recognising that innovation crosses borders and boundaries, both cities shall endeavour to provide support to businesses in the innovation sector who are required or desire to invest in each other's cities. We wish to learn as much as possible about the ways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en best supported in each city,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digital connectivity.

Article 5

Both cities shall use reasonable endeavours to cooperate in the fields of arts, culture and tourism. In particular the cities will work closely o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Cities

Culture Forum, with Seoul being the host for 2017, and will continue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engage in international forums and conferences hosted by the other city.

Article 6

Both cities shall where reasonably possible exp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mart city, e-government, urban regene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 by sharing expertise and best practices.

Both cities shall strive to pursue practic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shall discuss additional items, as necessary.

This statement which has been prepared in authentic duplicate in Korea and English, is made upon the official signing in London on 3 April 2017, It is intended solely to reflect the cooperation on envisaged by the parties. This statement is not intended to and shall not impose upon the signatories, GLA or SMG any legal obligations.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from the date of signatur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ities shall continue unless either party requests for a view.

Sadiq Khan Mayor of London	Park Won Soon Mayor of Seoul

붙임3

영국 개황

☐ 일반사항

○ 국　　명 :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수　　도 : 런던(London, 817만 명)

○ 면　　적 : 약 24,482만㎢(한반도의 1.1배)

○ 인　　구 : 약 6,374만 명(2014)

○ 종　　교 : 기독교(59.5%), 이슬람교(4.4%), 힌두교(1.3%), 기타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의회구성(2015.8) : 하원(650명), 상원(781명), 임기 5년, 소선거구제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 Ⅱ)
- 총　　리 : 테레사 메이(Theresa May)
- 외교장관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 경제현황

○ 주요경제지표(2014, IMF)

- GDP : 2조 9,451억불
- 1인당 GDP : 45,653불
- GDP 성장률 : 2.6%

○ 교　역(2015, KITA)

- 수　출 : 4,596억불
- 수　입 : 6,257억불

☐ 외교관계 수립

○ 1883.11.26.　　한-영 우호통상조약체결

○ 1949.1.18. 한-영 재수교

붙임4

런던 개황

☐ 위　　치 : 영국 남동부 템스강

☐ 면　　적 : 1,572㎢(서울시의 약2.6배)

☐ 인　　구 : 8.4백만명(2013)

☐ 행 정 부

○ 런던시장 : Sadiq Khan (직접선거, 임기 4년)

○ 행정구역 : 32개 Boroughs 및 런던시티(city of London)

☐ 자매결연 도시

○ 베이징, 베를린, 보고타, 모스코바, 뉴욕, 콸라룸푸르, 파리, 로마, 산티아고, 테헤란, 도쿄

☐ 특이사항

○ 일본 모리재단의 '도시 경쟁력' 지표 3년('12~'14) 연속 1위 도시

○ 인구 1만 명 이상의 이주 공동체가 50국 이상 존재하는 국제도시

- 그외 영어 학습을 위한 단기 체류자도 많음

○ .london 이라는 최상위 도메인 등록

붙임5

런던시장 사디크 칸

□ **성　　명 :** 사디크 칸 (Sadiq Khan)

□ **나　　이 :** 46세 (1970년생)

※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

□ **학　　력**

○ 북 런던 대학 법학 학위

□ **주요경력**

○ 2016. 5 ~　　제 3대 런던 시장(노동당)

○ 2009 ~ 2010　　교통부장관

○ 2008 ~ 2009　　지역사회 부장관, 교통 부장관

○ 2005 ~ 2016　　투팅 지역구 국회의원 (‘10년 재선, ’15년 3선)

○ 1994 ~ 2006　　완즈워스 지역구 런던 시의원

○ 1997 ~ 2005　　인권 전문 사무변호사

□ **특이사항**

○ 인권단체 ‘리버티’에서 3년간 활동

○ ’05 《스펙테이터(Spectator)》 신인 정치인상 수상

○ 독실한 이슬람 신자(수니파) ※ 런던 내 무슬림 비율 : 12%

○ ‘13, ’15, ‘16년 ’올해의 무슬림 정치인‘상 수상

□ **가족사항**

○ 기혼, 자녀 2